

청소년 주도 온라인 혐오 대항 프로젝트 : 자 유학기제부터 <혐오 STOP > 캠페인까지

김, 상은 / 송, 선영

(出版者 / Publisher)

法政大学図書館司書課程

(雑誌名 / Journal or Publication Title)

The Journal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 미디어정보리터러シー研
究

(巻 / Volume)

3

(号 / Number)

2

(開始ページ / Start Page)

43

(終了ページ / End Page)

49

(発行年 / Year)

2022-03

(URL)

<https://doi.org/10.15002/00026047>

法政大学図書館司書課程

メディア情報リテラシー研究 第3卷2号、043-049

特集 インクルーシブなメディア教育とデジタル・シティズンシップ
(第2回韓日メディア情報リテラシーフォーラム)

청소년 주도 온라인 혐오 대항 프로젝트 자유학기제부터 <혐오 STOP> 캠페인까지

송선영, 김상은

PART 1. 자유학기제—송선영 강사

안녕하세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강사 송선영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속에서 우리는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댓글과 장면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히 난무하고 있는 이 것은 바로 혐오표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깊어진 혐오의 감정과 혐오표현이 사회적인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

혐오표현이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미디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항상 접하고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 근절과 대항을 위해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책연구팀에서 기획, 개발하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및 준비과정]

4월 워크숍을 통해서 혐오 개념을 이해하고 학교 안 혐오 현상의 실태와 대책 특강을

들으며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완성된 교안을 토대로하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5월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
습니다.

[교육목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미디어속의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항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과정]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총 5차시의 온,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과 라디오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급입니다.
학생들은 미디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차시별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차시에서 정체성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타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태어난 국가, 성별, 신분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객관적 정보 외에도 자신의 관심사, 취미, 성격도 자유롭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는 참여자에게 자신을 둘러싼 고정관념, 차별, 편견은 무엇이 있는지 질
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아사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이라는 질문과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학생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급식충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부딪쳐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 적대적 표현이 혐오 표현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였습
니다.

이후 혐오표현들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차시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분열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과 혐오표현의 방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악의가 없는 혐오 표현도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으로 블랙페이스로 분장을 한 사진입니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이 아닌 배우가 얼굴을 검게 칠하고 입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분장입니다.
이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멕시코 축구팬들이 SNS 를 통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동양인을 조롱하는 '찢어진 눈' 을 하고 있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 예시에서 악의가 없더라도 무지함으로 인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라는 점,

또한 특정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2 차시에서는 혐오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참여자들은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4 차시는 참여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성찰]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육 이후에 혐오표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본다면 논리적인 반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성찰]

프로젝트 이후 연구원들의 참여자 면담을 통해 얻은 성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참여자는 혐오표현이 사회구조적으로 발휘하는 힘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하며
교실 혹은 사회적 분위기가 혐오표현을 듣고 웃는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평소에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표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부분에서
사회적 감수성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 성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혐오표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 참여자들에게까지 혐오표현을 노출해야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실안에도 소수자, 즉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참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스스로가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 후에야, 혐오 표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강사 역시 차별에 대한 인식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송선영 강사였습니다.

PART 2. < 혐오 STOP 캠페인 > —김상은 강사

안녕하세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강사 김상은입니다.

두 번째 발표인 < 혐오 STOP 캠페인 > 미니캠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획배경입니다.

출발점은 2021년도 디지털 시민성 강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프로젝트팀이 협업하여 < 청소년 주도 온라인 혐오 대항 프로젝트 >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앞선 사례발표에서 들으신 바대로 대전지역 2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시범운영 및 결과공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미니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였고,

차별점으로는 미디어 제작 경험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학기 내 주어진 과제를 이수하는 개념보다는 주제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참여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유학년제의 경우, 중1 자유학년제 직업탐구 선택 중 미디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대상이고, 학교 교육과정 내 참여라는 수동 참여의 형태였으며, 미디어 제작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이 다수였고, 프로젝트형 수업(PBL)에 어색해했으며, 혐오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학급 당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1명의 강사

와 1 명의 보조강사가 지원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의 (= 이전 자유학기제의) 한계점들을 캠페인에서는 많이 극복하고자 했고, 그래서 미니캠프는 만 18 세 이하 청소년으로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혔고, 기존 활동하는 미디어·사회문화·토론 동아리의 팀 단위 신청을 모집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외 미디어 활동 참여라는 능동 참여의 형태를 띠었고, 미디어 제작에 능통한 학생들이 다수였고, 프로젝트 수업에 익숙했으며, 혐오 개념과 해당 캠페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강사가 있고 팀별 멘토가 매칭되는 그런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주축으로는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오정훈 센터장님의 지원 아래 담당과 기획을 김지훈 선임님이 맡아주셨고, 공동캠페인 진행을 위해 한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인권사무소를 협력 기관으로 체결했습니다. 2 명의 책임강사와 각 책임강사 별로 2 명의 멘토들, 그리고 멘토별로 각 팀이 매칭되는 구조입니다.

책임강사의 경우, 자유학기제 주강사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및 기획 전반을 지도했고 멘토의 경우, 학생들의 니즈 needs 를 파악하고 제작과정활동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으로 피드백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부 운영을 보시면, 홍보영상을 만들어 SNS 에 게시해 홍보했고 그 결과 4 팀이 선정, 총 참여 인원은 20 명이었습니다. 5 주간 캠페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매주 토요일 3 시간씩 운영했습니다. 결과물로는 팀 당 1 개의 캠페인 영상이 완성되었고, 확산방안으로는 대시미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SNS 을 통해서 캠페인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활동이란 무엇인지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우리 사회에 혐오가 가득한데, 그 혐오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는 기획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제작 단계로, 올바르게 못한 혐오 표현들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캠페인 제작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저희는 마지막 단계로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혐오를 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을 유도했습니다.

1 차시에는 혐오 인식교육, 혐오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에 대한 공부를 했고

2 차시에는 혐오 캠페인 기획, 팀별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 기획하고 논의했고요

3 차시에는 특강을 가져서, 김언경 (몽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 미디어 속 혐오와 가짜뉴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해 살펴봤고, 각 팀별로 자

신들의 기획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차시에는 혐오 예방 관련 영상을 제작하며 실질적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각 팀이 촬영하는 모습들이고요

마지막 5 차시는 발표회 및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위해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학생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문제의식, 느낀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발표회와 교육과정은 여기서 종료되지만 혐오 캠페인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선포식을 거행하기 위해 제가 “혐오” 라고 외치면 학생들이 “멈춰” 로 응답해주는 부분이 지금 보는 장면입니다.

지금 발표에서 각 팀이 만든 작품을 보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이는 순서대로) 동방여자중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동대전고등학교의 영상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수료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자 발표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크게 3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미디어 생산자가 될 청소년의 미디어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알고 또 미디어 제작을 통해 그 (사회)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생각과 목소리는 참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창의적인 기획으로 다듬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성취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들며 배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론과 제작이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이론이 제작을 위한 (즉,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 지점이었는데요, 한편으로 청소년 세대는 온라인 혐오를 가장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혐오에 대항하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또 다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소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세대 내에서 자정작용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